

한미, '판' 깨질라 北발사체 맞불대응 자제

폼페이오 "단거리 발사체" 군당국 "한미가 공동평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 채 대화에 방점을 찍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선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뉴스 시사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해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의 성격을 따지기도 하는 여전히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해당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데이터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며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

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 번 봐야겠다"면서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해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가 미국이 그어놓은 '1차 저지선'을 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북미협상 전망과 관련, "이번에 한 행동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 설정한 '1차 저지선'은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아니라 북한이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해 천명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지'를 뜻한다는 인식이 읽힌다.

북한은 지난해 4월 20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핵실험

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약속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북한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대화국면에서 북한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는 한국 정부의 대응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난 4일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조속한 대화제재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관계부처 장관회의 직후 나왔고, 정부는 이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는 NSC를 열었다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리고 한미는 '북한의 발사체 일부는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 속에서도 북한 발사체에 '미사일'이 포함됐다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다분히 상호 조율된듯한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기류는 7~8일 일본, 9~10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메시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비답에 가까운 일괄타결론을 고수할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에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둘지 등이 주목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미중 무역협상 강대강 대치 막판 진통에 타결전망 흔들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협상 막바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해 더 많은 것을 얻어 내려는 포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더는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 이어서 미중 무역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6일 베이징 소식통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은 이에 반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양측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오는 8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중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터라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당장 중국 증권시장의 주가와 위안화 가치, 국제유가가 6일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순조롭게 결승점을 향해 가던 것으로 보였던 미중 협상이 다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5일 트위터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10개월 동안 중국은 미국에 500억 달러 첨단제품에 대한 25% 관세, 2000억 달러에는 10% 관세를 지불해오고 있다"며 "금요일(오는 10일)에는 10% 관세가 25%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하던 중 화재가 발생, 41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슈퍼젯 100' 여객기 동체가 불에 타 시커멓게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여객기 낙뢰 맞고 비상착륙중 화재...41명 사망

승객과 승무원 78명 탑승 랜딩기어 파편 날아들어 불

승객과 승무원 78명이 탄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가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기체에 화재가 나 4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들은 사고기가 이륙 직후 낙뢰를 맞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소속 '수호이 슈퍼 제트 100' 여객기가 5일(현지시간) 오후 6시 2분께 북부 도시 무르만스크로 가기 위해 모스크바 북쪽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을 이륙했다가 28분 뒤 회항을 결정했다.

여객기는 이륙 후 모스크바 인근 상공을 몇 차례 선회 비행하다 급격히 고도를 낮춘 뒤 비상착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기는 너무 빠른 하강 속도 때문에 두 번의 시도 끝에 착륙에 겨우 성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기체 뒷부분이 화염에 휩싸였다. 사고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 대변인은 자국 언론에 "승객 40명과 승무원 1명 등 4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최소 2명의 어린이가 포함돼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부상자도 현재까지 11명으로 집계됐다.

한 소식통은 인테르팍스 통신에 "일부 승객이 공황 상태에서 기내 수화물 칸에

있던 짐을 찾으려고 통로를 막아 여객기 뒤편 승객들의 탈출이 지연됐고 결국 그들이 불 속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여객기의 긴급 회항 이유와 및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지에선 이 여객기가 낙뢰를 맞은 뒤 회항 및 비상착륙하다 불이 났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타스 통신은 재난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기체에 번개가 떨어진 게 사고 원인이며 이후 기장이 회항과 비상착륙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주요 사고 원인은 기체에 떨어진 번개다. 그 후 전자장치가 고장났다"면서 "승무원도 번개 타격을 확인했다"고 타스 통신에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80> 정전

정전(825-883)의 자는 태문이며 하남성 형양 출신이다. 당 희종때 2차례 재상을 역임한 만당의 정치인이다.

계관관찰사를 지낸 정아의 아들로 회창 2년(842) 진사에 급제했다. 선무군절도추관, 비서성교서랑을 제수 받았다. 846년 무종이 급서하자 황숙인 광왕 이침이 선종으로 즉위했다. 우승으로 간주돼 관직을 얻을 수 없었다. 859년 선종이 봉어하고 장남이 의종으로 즉위했다. 864년 형부원외랑, 만년현 현령에 임명되었다. 868년 유점이 재상이 되자 그를 추천해 호부낭중, 한림학사, 지제고로 발탁되었다. 868년 방훈의 난이 일어났다. 감소성 변진군

급하는 요충지였다. 회남절도사 고병은 장수 장인으로 하여금 성을 지키는 소극적 전략으로 일관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황제는 그를 봉상농우절도사로 임명했다.

880년 11월 황소군은 낙양을 함락시키고 12월에는 장안 외곽의 동관을 점령했다. 재상 노류는 두려움에 목숨을 끊었다. 환관 전량자는 500명의 신책군으로 황제를 호위해 장안을 빠져나가 산남을 거쳐 사천으로 도망쳤다. 봉상절도사 정전은 "도로가 막히고 걸려서 주문과 회보가 왕래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편리한대로 일을 쫓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청해 반란에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전이 막로들과 상의하니 그들 모두 말하기를 "도적의 기세가 바야흐로 치열하니 의당 조림학사, 지제고로 발탁되었다. 868년 방훈의 난이 일어났다. 감소성 변진군

황소의 난 진압한 晚唐 정치인

인이 일으킨 반란이었다. 조정에서 특별군을 보냈는데 이때 조서 작성을 담당해 뛰어난 문재를 과시했다. 호부시랑, 한림학사를 거쳐 870년 병부시랑이 되었다. 같은 해 재상 유점이 파직되었는데 관련 조서를 작성했다. 업적을 상찬하는 내용을 작성했다고 위보 형으로부터 탄핵받아 광서성 오주자사로 좌천되었다.

873년 의종이 죽고 희종이 12세에 즉위했다. 전령자가 환관의 우두머리로 조정을 좌지우지했다. 정전이 조정 에 부름을 받아 병부시랑에 임명되었다. 877년 동평장사로 승진해 재상에 취임했다. 희종이 정전을 신임해 문하 시랑겸부상서, 집현전대학사, 형양군후에 봉하였다. 희종 즉위 후 왕선지, 황소의 난이 발생했다. 왕선지가 회남의 여러 지방을 점령하자 주문을 올려 "도적들이 양주를 함락시키면 강남을 잃게 된다"며 초토사를 보내 토벌할 것을 건의했다. 소금 판매업자 출신의 황소가 일으킨 난은 전국적 반란으로 확대되었다. 여러 차례 반군 토벌을 주청했지만 희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79년 황소군이 영남을 정벌하자

분은 나에게 도적의 신하가 되라고 권하는 것이요!"라고 말하며 속상해 혼절해 땅에 쓰러졌다. 그는 손가락을 찌러서 피로 표문을 쓰고 당양조에 충성하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주니 부하들이 모두 그의 명령을 따랐다. 성과 해자를 고치고 병기를 수선했다. 우왕좌왕하던 군대를 모아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줘 마음을 결집시켰다.

황소가 봉상을 공격했다. 정전이 요충지에 군사를 매복해 반격하니 도적들이 대패해 참수된 것이 2만여 급이 되었다. 881년 10월 행군사마 이장인이 반란을 일으켜 봉상을 포위했다. 희종이 병권을 그에게 넘기고 자신은 부총이 있는 성도로 떠났다. 도중에 황제에게 사직을 청해 태자소부에 임명되고 낙양의 분서를 담당하였다. 882년 사공, 문하시랑, 동평장사로 재차 재상직을 수행했다. 전량자는 인사 청탁을 하였고 진경선은 재상직에 오르기를 희망하였으나 허락지 않았다. 두사람이 모의해 봉상절도사 이장언이 참소로 확대되었다. 여러 차례 반군 토벌을 주청했지만 희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79년 황소군이 영남을 정벌하자 정전에 자신을 전평절도사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880년 황소군이 회남의 여러 군을 공략하였다. 회남은 장안에 물자를 공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